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코모닝 채널 A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5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MBC 9시 공동기획 <명인2부>	30 아침연속극 <너라서 좋아>
9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30 SBS 뉴스
10 40 채널 A 베스트 글로벌 한식토크 쇼킹(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재)	50 지구촌 뉴스	00 특집다큐멘터리 <빛의 산맥 피레네 1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50 채널A 뉴스	00 교육특집 진로교육에 길을 묻다 2부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가족 50 비타면(재)	00 MBC 정오뉴스 20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전국TOP 10 가요쇼(재)
12 10 분노왕(재) 4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12			
1 50 박상규의 대선스타일	00 KBS결정선 <영광의 재인>(재)	00 김승우의 승승장구(재)	10 문화 콘서트 난장 스페셜	30 마이문명의 신비 중앙 아메리카
2 50 이언경의 세상만사	00 KBS 뉴스 10 KBS 중계석 국립 오페라단 <카르멘2부>	10 영화가 좋다(재)	00 MBC 2시 뉴스 10 MBC 파워메가진	00 SBS 뉴스 10 넷트워킹현장 고함! 보인다
3 50 이언경의 대선만사	35 바른말 고운말(재) 40 아름다운 사람들 스페셜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뉴스타임 35 딸기가 좋아(재)	00 MBC 3시 경제 뉴스 10 TV협상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넷트워킹현장 고함! 보인다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The 비밀밥-전주>	00 피우와 찹스(재) 30 TV 유치원	00 뽀빠뽀 아이조아 30 내사랑 똥	00 SBS 뉴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암행어사 출두요	
6 00 스포츠 베토벤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45 일일시트콤 <덕치고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그레도 당산>
7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 김>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1대 100	50 월화시트콤 <엄마가 뭐길래>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날씨와 생활 50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KBC토크&콘서트
8 40 갈매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 9	00 월화드라마 <울랄라부부>	55 청사51주년 특별기획 <마의>	55 월화드라마 <드라마의 제왕>
9 50 뉴스A	00 시사기획 창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KBS 뉴스 라인 40 세상사는 이야기	20 김승우의 승승장구	15 KBS 100부 토론
10 00 나가 짝짝 놀랄만한 애기를 들려주마	00 KBS 뉴스 9	00 KBS 뉴스 라인 40 세상사는 이야기	20 김승우의 승승장구	15 KBS 100부 토론
11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20 프리미어 드라마 <빅C>(재) 50 분노왕(재)	30 KBS 뉴스 40 즐거운 책 읽기 ①:30 KBS결정 다큐멘터리 <로드다큐 지구의 길>(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해외특별기획 드라마 <삼국지>	55 MBC 뉴스24 ①:05 유엔스토리 <달려라 인생 스페셜>	35 나이트리인 ①:00 SBS 대기행 <대풍수>(재)

휴 잭맨 “직감적인 감정 몰입 쉽지 않았죠”

뮤지컬영화 ‘레미제라블’ 홍보차 방한... 내달 개봉



“내가 절대로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의식을 하면 사실적인 연기가 되지 않죠. 카레이싱에서 직감적으로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음악 기법이 어떤지 고민을 하지 않고 감정에 몰입해서 노래해야 하죠.”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홍보차 방한한 호주 배우 휴 잭맨(44·사진)이 주인공 장발장으로 노래하는 어려움을 전했다.

26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 잭맨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첫 인사를 하고서 “제가 한국의 팬인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한국팬을 만난 소감을 전했다. 영화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지난 1985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한 이래 전 세계 42개국의 무대에 올랐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은 고전이죠. 그 내용에 사랑, 희망, 용서, 정의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작품에 들어가 있어요. 소설에 영감을 얻어 음악을 입힌 거죠. 최고의 대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김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 4개 상을 거머쥔 톰 후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레미제라블’을 비롯해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의 뮤지컬을 제작한 카메론 맥킨토시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휴 잭맨은 “장발장은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한다”며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높이 날아올랐다. 사람들이 장발장의 겸손, 용기, 남을 위한 마음을 보고 본보기로 삼는 듯 하다”고 캐릭터의 매력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 잭맨은 한국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사랑도 드러

냈다. 김연아가 새 프로그램 곡으로 ‘레미제라블’의 곡을 택한 것에 대한 ‘화답’인 셈.

휴 잭맨은 “‘레미제라블’을 선택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어로 “김연아 짱!”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20년 뒤에 저희가 ‘레미제라블’을 아이스 스케이팅 뮤지컬로 만들 거거든요. 그때 김연아, 러셀 크로우, 휴 잭맨이 주연을 맡을 겁니다.(웃음)”

영화는 내달 개봉한다. /연합뉴스

가수 김장훈, USB 앨범 첫 출시

가수 김장훈이 국내 가수 중 처음으로 USB(Universal Serial Bus :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규격) 형태로 앨범을 출시한다.

소속사인 공연세상은 “김장훈이 다음달 6일 발표할 10집을 CD뿐 아니라 USB로도 발

매한다”며 “4GB 용량의 USB에 전문 감상용 웨이브파일과 차량용 음악 감상을 위한 MP3 파일 두가지 형태로 수록곡과 뮤직비디오를 담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장훈은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2’에 다녀온 후 IT 회사들과 손잡고 기술을 개발하며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USB에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담아도 3GB 이상의 여유 공간이 남아 앨범의 소장 가치와 실용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며 “가격 또한 최대한 낮춰 1만 5000원 전후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7일(음 10월 14일 壬戌)

子 36년생 물상양면으로 풍요로운 하루가 전개되리라. 48년생 처세만 잘한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 60년생 의외의 성과에 흠뻑하리라. 72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좋다. 84년생 간단하고 명료하게 행하자. 행운의 숫자 : 57, 43

午 42년생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다고 느껴질 것이다. 54년생 갑자기 급등하여 매우 놀랄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공동으로 해두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안전하다. 78년생 미덥지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0, 63

丑 37년생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라. 49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다. 61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덤벼들면 결말이 난다. 73년생 기쁨이 서투르면 평가 절하된다. 85년생 한결같이 대하면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77, 08

未 43년생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상실감만 더 할 뿐이다. 55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67년생 취득은 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79년생 상대의 정서언인 협조에 감동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8, 13

寅 38년생 현상 유지하는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0년생 상대에 대한 의심은 오히려 뿐이다. 62년생 기다리는 것은 안 오고 아무 상관없는 것만 보인다. 74년생 한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66, 82

申 44년생 조금 줄어드는 듯하다가 증폭될 것이다. 56년생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자리를 찾게 된다. 68년생 베풀고 포용한다면 많은 이들이 따르리라. 80년생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날 날이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41, 92

卯 39년생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도록 하자. 51년생 먹구름이 보이니 감우에 대비해야겠다. 63년생 엉뚱한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75년생 내용성이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 아니라. 행운의 숫자 : 26, 97

酉 45년생 사실적인 것이 진정성을 띠게 된다. 57년생 분명히 행하는 것이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9년생 독창성을 상실한다면 무의미해진다. 81년생 커다란 것도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86

辰 40년생 자신의 의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약하다. 52년생 고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64년생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합구하고 있어야 한다. 76년생 상당히 타격적인 상황에 놓이리라. 행운의 숫자 : 33, 06

戌 46년생 약조건이 오히려 호재를 부르게 되리라. 58년생 미리 대처해나간다면 방지가 가능하다. 70년생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82년생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니 관련 사길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3, 73

巳 41년생 이르고도 생각할 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근원이 없다면 과성되는 것도 깨끗하리라. 65년생 현재 상태에서의 만족은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77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양호한 반응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4, 37

亥 47년생 겉으로 나타낸 것만으로 판단하려하지 마라. 59년생 소모적인 경쟁은 상호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71년생 반드시 유념하여야 되풀이 없느니라. 83년생 바르게 행동했을 때 마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5, 4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장수가족 건강의 비밀	<우리아이 똑똑하고 튼튼하게 키우는 동의보감 육아2>
06:30 아름다운 소원	
07:00 우리끼리 상상여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옥린의 우리집 김장하는 날 - 총각김치와 파김치>
07:30 치료와 친구들	11:20 세계테마기행 <중국인어의 꿈, 산서성>
07: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12:00 EBS 정오 뉴스
08:00 똥덩이 유치원 1~3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08:3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큐 프라임 <학교의 고백 5부>
08:45 숲 속 친구 파파를라	13:55 지식채널 e
09:00 방구대장 뽕뽕이	14:05 함께하는 한국어
09:1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15 코코몽2	
09:30 마사와 곰	
09:45 이기 공룡 버디	
10:00 부모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2 2학기 학교시험 대비 <수학>(하)	10:00 <여한중의 생명과학 1>
00:50 2013 수능개념 <주식>(하)	10:50 <박남정의 지구과학II>
01:40 <문주생의 필(Feil)통(通)수학 1>	11:40 <고동국의 꿈꿈한 기하와 벡터>
02:30 <포기를 모르는 세식생의 수학II>	12:30 공부의 원도
03:20 <국어영역 남궁민영의 개념으로 정연승부>	13:00 2013 수능개념 <친절한 허영생의 미적분과 통계기분>
04:10 <국어영역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출과>	14:00 <류성원의 기습 떨리는 한국사>
05:00 <윤정환의 수능영어 기민하기>	15:00 <LADY생의 개념 있는 적분과 통계>
05:50 <이아영의 마법노트>	16:00 <민병권의 퍼펙트 세계지리>
06:40 2012 탐스런 <박봉의 사회문화>	17:00 <김승희의 윤리와 사상 상(上)상(上)노트>
07:30 <이은희의 화학 1>	18:00 2012 2학기 학교시험 대비 <기하와 벡터>
08:20 2013 수능개념 <차영의 물리 1>	19:00 <미적분과 통계기분>
09:10 <김현준의 화학 1>	

<p>굿모닝 잉글리쉬</p> <p>I'm fed up with him</p> <p>난 그 사람이려면 너더러가 난다구</p> <p>A : This is the third time John has missed work this week. B : Even when he comes, he's too lazy to do very much. A : Right, I'm fed up with him. B : I feel the same way. Now we have to do this work without him.</p> <p>A : 존이 일에서 빠진지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B : 설령 온다해도 워낙 게을러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할거예요. A : 맞아요. 난 그 사람이려면 너더러가 난다구. B : 동의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 없이 이 일을 처리합니다.</p> <p>* feed up = 너더러나게 하다(with). * do = finish, complete * miss work = 결근하다</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한자이야기</p> <p>左袒(좌단)</p> <p>왼 좌, 웃통벗을 단</p> <p>좌단(左袒)이란 '웃옷의 왼쪽 어깨를 벗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편들어 동의함을 이르는 말이다. 하고조 유방이 죽은 후 그의 아내 여후가 권력을 쥐고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잡으려 하자 태위 주발이 군사들을 모아 놓고 "원래 한실의 주인은 유씨이고. 그런데 무명하게도 여씨가 유씨를 누르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는 한실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 삼장군 주발은 천하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여씨를 위하는 사람은 오른쪽 소매를 벗고, 유씨를 위하는 사람은 왼쪽 소매를 벗어라."라고 영을 내리자 장병은 모두 왼쪽 소매를 벗어 유씨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 이리하여 천하는 다시 유씨에게로 돌아갔다.</p> <p>[출전] 『사기(史記)』(여후본기(呂后本紀))</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	---

<p>니하오 쑹구위</p> <p>路盲 lù máng</p> <p>'길치'를 중국어로?</p> <p>요즘은 차에 '그녀'가 없으면 낯선 길에 갈 엄두가 안납니다. 그래도 천성 '길치'인지라 '그녀'에게 의존하는 횡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p> <p>'길치'의 표현을 중국에서는 '盲人(맹인)'에 쓰이는 '소경 맹(盲)'자를 '길(路)'에 붙여 '路盲'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처음의 출발은 글을 모른다는 의미의 '文盲(문맹)'인 듯한데, 지금은 맹자를 거의 모든 단어에 붙여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부분에 어두운 '歷史盲 lǐshǐmáng'이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보죠.</p> <p>우리고 어는 방면에 어두운 걸 문맹, 캄캄처럼 '맹'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음치, 길치처럼 치(癡·癡)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오하오우 니혼고</p> <p>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p> <p>기다리고 있습니다</p> <p>A : おじゃまします。 B : いらっしゃい。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 A : これ、ちょっと札幌に行ってきましたので。 B : 氣を使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p> <p>A : 실례하겠습니다. B :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 : 이거, 삿포로에 좀 다녀와서요. B :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p> <p>氣(き)を使(つか)う 신경 쓰다 おじゃま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邪魔(じゃま) 방해, 훼방</p> <p><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p>
--	--